

[기획보도자료]

 보도자료 2013.7.22.(월)	내용문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통계센터 송 치 선 (02-3156-7144)
	언론담당	황 애 리 (02-3156-7296)
	보도일자	2013.7.22.(월)
	※ 총38쪽 (붙임 포함) www.kwdi.re.kr	

※ 이 자료의 저작권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통계센터에
있으니 사용 시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로 보는 한국 여성의 안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통계센터,
국내·국제사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폭력 자료 분석 제공**

- 최근 우리사회는 성폭력 등의 범죄사건과 관련한 안전,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안전, 마을의 안전 등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근절 방안을 촉구하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통계센터에서는 ‘통계로 보는 한국 여성의 안전’ 을 통해 국내외 국제사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폭력 자료를 분석하여 제공한다.

-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성폭력 피해여성은 21-30세가 가장 많으며, 성폭력은 주택지역 발생률이 높으므로, 이러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이번 기획보도자료 배포의의를 밝혔다.

주목할 만한 이슈

성폭력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검거율은 하락	5
시간대는 밤, 장소는 주택지역에서의 성폭력 발생 빈도 높아	6
성폭력 수사의 단서, 신고 66.5%, 현행범 15.6%, 미신고 17.9%	8
성폭력 피해자는 21~30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	9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 증가 추세, 기소율은 43%에 불과	12
가정폭력 2009년 이후 감소 추이, 기소율은 증가세	14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여성이 83.8%, 2009년 이래 여성비율 크게 증가	15
우리 사회의 전반적 안전 의식, 남녀차이 다소 확대	17
우리 사회의 범죄위험, 여성이 남성보다 더 불안함 느껴	18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느껴	19
한국의 성폭력 발생건수 인구 10만 명당 33.7건	21

- 자료 목차 -

1. 여성에 대한 폭력과 안전의식	5
가. 여성에 대한 폭력	5
1) 성폭력(강간, 강제추행 등) 발생건수 및 검거율	5
2) 성폭력 발생시간 및 발생장소	6
3) 성폭력 수사단서 현황	8
4) 연령별 성폭력 피해자	9
5) 아동 성폭력 사범 접수 및 현황	12
6) 가정폭력	14
7)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15
나. 안전의식	17
1) 전반적 사회안전 의식	17
2) 범죄 위험	18
3)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19
2. OECD 회원국의 성폭력 비교	21
1) 성폭력 발생건수	21
2) 아동 성폭력 발생건수	25
붙임 1. OECD 회원국의 연도별 성폭력 추이	30
붙임 2.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범죄동향 및 형사사법체계운영 실태조사(CTS)	36

1. 여성에 대한 폭력과 안전의식

가. 여성에 대한 폭력

1) 성폭력(강간, 강제추행 등) 발생건수 및 검거율

성폭력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검거율은 하락

□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각급 수사기관(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에서 보고한 성폭력 발생건수는 22,034건으로, 2002년 이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성폭력 발생건수는 검거통계원표 기준통계임.

□ 반면 검거율은 2011년 현재 84.4%로 2002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09년의 92.2% 이후 계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음.

$$\text{※ 검거율(\%)} = \frac{\text{검거건수}}{\text{발생건수}} \times 100$$

□ 강력범죄의 검거율을 살펴보면 살인(95.3%), 상해(92.1%), 폭행(90.2%), 협박(8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86.7%), 체포와감금(85.9%), 강도(84.8%), 성폭력(84.4%), 약취와유인(83.1%), 폭력행위등(단체등의구성·활동)(75.4%), 방화(74.5%), 공갈(62.3%)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성폭력의 검거율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여성정책 3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품다



[그림 1] 성폭력 발생건수 및 검거율

자료: 대검찰청(각 년도), 「범죄분석」

2) 성폭력 발생시간 및 발생장소

시간대는 밤, 장소는 주택지역에서의 성폭력 발생 빈도 높아

- 2011년 현재 성폭력 발생시간대를 살펴보면, 밤 시간대인 20:00~03:59 사이에 7,706건(35%)이 발생하여 가장 빈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2] 성폭력 발생시간대별 분포(2011)

자료: 대검찰청(2012), 「범죄분석」

- 2011년 현재 성폭력 발생장소를 살펴보면, 노상이 2,765건 (12.5%), 단독주택이 2,493건(11.3%),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이 2,082건(9.4%)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단독주택과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을 주택지역으로 묶으면 발생건수가 4,575건(20.7%)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장소에 해당함.

[표 1] 성폭력 발생장소별 분포(2011)

(단위: 건, %)

발생장소	발생건수	(비율)
노상	2,765	(12.5)
단독주택	2,493	(11.3)
숙박업소, 목욕탕	2,452	(11.1)
아파트, 연립, 다세대	2,082	(9.4)
유형접객업소	1,309	(5.9)
지하철	1,227	(5.6)
기타교통수단내	552	(2.5)
역대합실	435	(2.0)
상점	351	(1.6)
사무실	327	(1.5)
유원지	170	(0.8)
학교	150	(0.7)
의료기관	138	(0.6)
종교기관	53	(0.2)
산야	39	(0.2)
기타	7,491	(34.0)

자료: 대검찰청(2012), 「범죄분석」

3) 성폭력 수사단서 현황

성폭력 수사의 단서, 신고 66.5%, 현행범 15.6%, 미신고 17.9%

- 범죄를 실행하는 중 혹은 실행한 직후에 잡힌 현행범은 15.6%에 해당하고, 신고에 의해 수사가 시작된 경우는 66.5%, 미신고 경우도 17.9%로 나타나고 있음.

[표 2] 성폭력 수사단서(2011)

(단위: 건, %)

수사의 단서		발생건수	(비율)
계		22,034	100.0
현행법		3,435	(15.6)
신고		14,644	(66.5)
	피해자신고	9,082	(41.2)
	고소	3,973	(18.0)
	고발	31	(0.1)
	자수	10	(0.0)
	진정투서	421	(1.9)
	타인신고	1,127	(5.1)
미신고		3,955	(17.9)
	불신검문	79	(0.4)
	피해품발견	1	(0.0)
	변사체	3	(0.0)
	탐문정보	2,653	(12.0)
	여죄	489	(2.2)
	기타	730	(3.3)

자료: 대검찰청(2012), 「범죄분석」

4) 연령별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는 21~30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

- 2011년 현재 성폭력 피해자 발생건수는 21,839건으로 2002년의 6,034건 대비 3.6배 이상 증가하였음.
- 성폭력 피해자 발생건수는 발생통계원표 기준통계임.
- 피해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2011년 현재 여성비율은 94%로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2년 대비 남성 피해자의 비율은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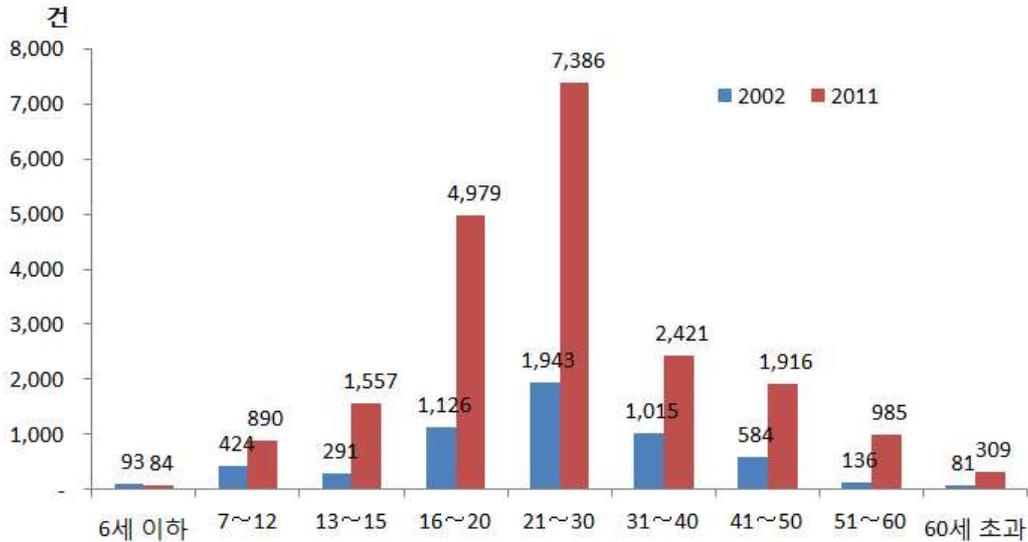
[표 3] 연령별 성별 성폭력 피해자

(단위: 건, %)

연령	2002				2011			
	전체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6,034	5,693	341	94.3	21,839	20,527	816	94.0
6세 이하	98	93	5	94.9	85	84	1	98.8
7~12세	450	424	26	94.2	968	890	78	91.9
13~15세	305	291	14	95.4	1,611	1,557	54	96.6
16~20세	1,159	1,126	33	97.2	5,132	4,979	153	97.0
21~30세	2,046	1,943	103	95.0	7,619	7,386	233	96.9
31~40세	1,090	1,015	75	93.1	2,554	2,421	133	94.8
41~50세	627	584	43	93.1	2,017	1,916	101	95.0
51~60세	149	136	13	91.3	1,031	985	46	95.5
60세 초과	110	81	29	73.6	326	309	17	94.8
미상	-	-	-	-	496	-	-	-

자료: 대검찰청(2003, 2012), 「범죄분석」

- 여성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11년 현재 21~30세 피해자 발생건수가 7,386건으로 가장 많고, 16~20세 4,979건, 31~40세 2,421건, 41~50세 1,916건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02년 대비, 6세 이하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 피해자의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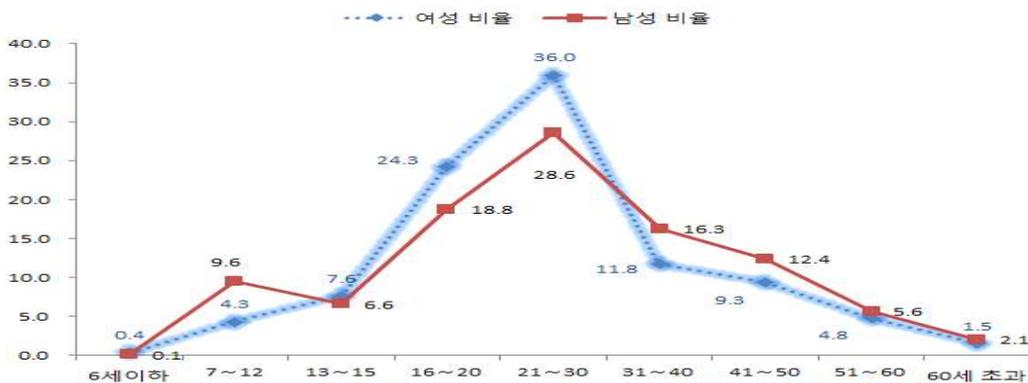


[그림 3] 연령별 여성 성폭력 피해자(2002, 2011)

자료: 대검찰청(2003, 2012), 「범죄분석」

□ 피해자의 성별 연령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16~20세 24.3%, 21~30세 36.0%로, 동 연령대 남성 피해자의 구성 비율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남성의 경우는 7~12세 9.6%, 31~40세 16.3%, 41~50세 12.4%로 동 연령대 여성피해자의 구성 비율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4] 성폭력 피해자 성별 연령별 구성비(2011)

자료: 대검찰청(2012), 「범죄분석」

5) 아동 성폭력 사범 접수 및 현황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 증가 추세, 기소율은 43%에 불과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은 2011년 현재 3,978명으로 2007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중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특별법위반 사범은 2007년 702명에서 2011년 현재 816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임.



[그림 5] 아동 성폭력 사범 접수 및 현황

자료: 법무부(2012), 「법무부여성통계」

- 2011년 현재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기소율은 43.0%로 2007~2011년 평균 기소율은 43.3%에 해당함.
- 2011년 현재 13세미만 아동대상 성폭력특별법 위반 범죄의 기소율은 55.9%로 2007~2011년 평균 기소율은 59.2%에 해당함.

[표 4] 아동 성폭력 사범 접수 및 처분 현황

(단위: 명, %)

연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 ¹⁾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특별법위반 ²⁾		
	접수	기소	기소율	접수	기소	기소율
2007	2,062	947	45.9	702	415	59.1
2008	2,587	1,149	44.4	828	523	63.2
2009	2,699	1,087	40.3	774	448	57.9
2010	3,725	1,618	43.4	880	527	59.9
2011	3,978	1,711	43.0	816	456	55.9
2007-2011년 합	15,051	6,512	43.3	4,000	2,369	59.2

주 : 1) 산출죄명 : 미성년자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2) 산출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자료: 법무부(2012), 「법무부여성통계」



[그림 6] 아동 성폭력 사범 기소율

자료: 법무부(2012), 「법무부여성통계」

6) 가정폭력

가정폭력 2009년 이후 감소 추이, 기소율은 증가세

- 2011년 현재 가정폭력 처분결과를 살펴보면 총 처리인원은 6,227명으로 2002년의 15,271명 대비 큰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 2011년 현재 가정폭력 기소율은 17.7%로 2009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 7] 가정폭력 처분결과

자료: 법무부(각 년도), 「법무부여성통계」

[표 5] 가정폭력 처분결과

(단위: 명, %)

연도	처리인원	기소		소년보호 사건	가정보호 사건	불기소	타관이송	기타
		기소자	기소율					
2002	15,271	2,682	17.6	104	4,984	7,339	33	129
2003	18,932	2,808	14.8	57	5,898	9,950	45	174
2004	17,294	2,429	14.0	72	5,218	9,394	32	149
2005	15,498	2,161	13.9	36	4,475	8,712	24	90
2006	13,531	1,972	14.6	33	4,197	7,230	22	77
2007	12,807	1,757	13.7	42	4,735	6,173	32	68
2008	13,341	1,841	13.8	12	4,833	6,549	28	78
2009	12,154	1,262	10.4	17	4,579	6,215	23	58
2010	6,939	1,038	15.0	19	1,095	4,741	-	46
2011	6,227	1,103	17.7	5	1,100	3,993	-	26

자료: 법무부(각 년도), 「법무부여성통계」

7)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여성이 83.8%, 2009년 이래 여성비율 크게 증가

-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범죄(흉악)의 피해자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11년 현재 여성피해자는 23,544명, 남성피해자는 4,553명 수준으로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83.8%에 해당함.
- 2009년 이래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여성정책 3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품다



[그림 8] 강력범죄(흉악) 피해자의 성별 분포

자료: 법무부(각 년도), 「법무부여성통계」

[표 6] 강력범죄(흉악)¹⁾ 피해자의 성별 분포

(단위: 명, %)

연도	전체	여성	남성	여성비율
2002	10,696	8,082	2,614	75.6
2003	13,157	9,856	3,301	74.9
2004	17,687	13,810	3,877	78.1
2005	18,583	14,847	3,736	79.9
2006	19,776	15,938	3,838	80.6
2007	20,361	16,006	4,355	78.6
2008	22,191	17,479	4,712	78.8
2009	24,903	19,254	5,649	77.3
2010	25,333	20,930	4,403	82.6
2011 ²⁾	28,097	23,544	4,553	83.8

자료 : 대검찰청(각년도), 「범죄분석」 .

주 : 1) 강력범죄(흉악)은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범죄를 말함

2) 전체에서 미상은 제외함.

나. 안전의식

- 성폭력 등으로 인한 안전 위협은 사회불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급속하고 밀접하게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침.
- 국민들의 사회안전 및 위험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나아가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안전의식 함양이 부각되고 있음.

1) 전반적 사회안전 의식

우리 사회의 전반적 안전 의식, 남녀차이 다소 확대

- 우리사회의 전반적 사회안전 의식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현재 여성은 40.6%, 남성은 33.9%가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남녀차이를 살펴보면 2012년에는 6.7%p 차이로 여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남녀차이는 2008년, 2010년 대비 2012년에 다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7] 전반적 사회안전 의식

(단위 : %, %p)

구분		안전함	보통	불안함
2008	여성	7.2	39.2	53.6
	남성	9.3	41.7	49.0
	남녀차이	2.1	2.5	-4.6
2010	여성	9.2	49.2	41.6
	남성	13.4	51.2	35.3
	남녀차이	4.2	2.0	-6.3
2012	여성	11.4	48.1	40.6
	남성	16.2	49.8	33.9
	남녀차이	4.8	1.7	-6.7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주 : 1) 15세 이상 인구(단 2012년은 13세 이상 인구)

2) 안전함 : '매우 안전'+ '비교적 안전', 불안함 : '매우 불안'+ '비교적 불안'

2) 범죄 위험

우리 사회의 범죄위험, 여성이 남성보다 더 불안함 느껴

- 우리사회의 범죄위험에 대한 인식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현재 여성은 69.5%, 남성은 58.9%가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8] 범죄위험에 대한 인식

(단위 : %, %p)

구분		불안함	보통	안전함
2001	여성	64.4	22.2	13.4
	남성	48.3	30.3	21.5
	남녀차이	-16.1	8.1	8.1
2005	여성	67.9	19.1	13.1
	남성	47.5	29.9	22.6
	남녀차이	-20.4	10.8	9.5
2008	여성	49.1	30.9	19.9
	남성	30.5	36.5	33.0
	남녀차이	-18.6	5.6	13.1
2010	여성	67.8	25.8	6.4
	남성	58.5	31.6	10.0
	남녀차이	-9.3	5.8	3.6
2012	여성	69.5	23.7	6.8
	남성	58.9	29.8	11.3
	남녀차이	-10.6	6.1	4.5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주 : 1) 15세 이상 인구(단 2012년은 13세 이상 인구)

2) 안전함 : '매우 안전'+ '비교적 안전', 불안함 : '매우 불안'+ '비교적 불안'

3)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느껴

-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의식을 살펴보면 2012년 현재 여성은 56.3%, 남성은 30.4%가 두려운 곳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 두려운 이유로 남성, 여성 모두 인적이 드물어서, 가로등이 없어서, 우범지역이므로 순으로 응답하고 있음.

여성정책 3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품다

[표 9]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인식

(단위 : %)

성별	수록 시점	두려운 곳 있음	두려운 이유			
			가로등이 없어서	우범지역 이므로	인적이 드물어서	기타
전체	2001	48.6	32.4	11.9	54.0	1.7
	2005	42.6	28.0	8.5	62.7	0.8
	2008	40.8	26.2	10.0	62.1	1.6
	2010	40.6	28.8	7.6	62.4	1.2
	2012	43.6	29.7	8.5	60.9	0.9
여성	2001	58.8	31.9	11.0	55.2	1.8
	2005	53.9	26.9	7.5	64.7	0.9
	2008	53.5	24.7	9.3	64.4	1.6
	2010	51.7	26.2	6.8	65.7	1.3
	2012	56.3	27.4	7.7	63.8	1.1
남성	2001	37.8	33.2	13.4	51.9	1.5
	2005	30.8	30.0	10.3	59.1	0.6
	2008	27.6	29.3	11.4	57.6	1.7
	2010	29.1	33.6	9.0	56.3	1.1
	2012	30.4	34.0	9.9	55.4	0.7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주 : 15세 이상 인구(단 2012년은 13세 이상 인구)

2. OECD 회원국의 성폭력 비교

1) 성폭력 발생건수

한국의 성폭력 발생건수 인구 10만 명당 33.7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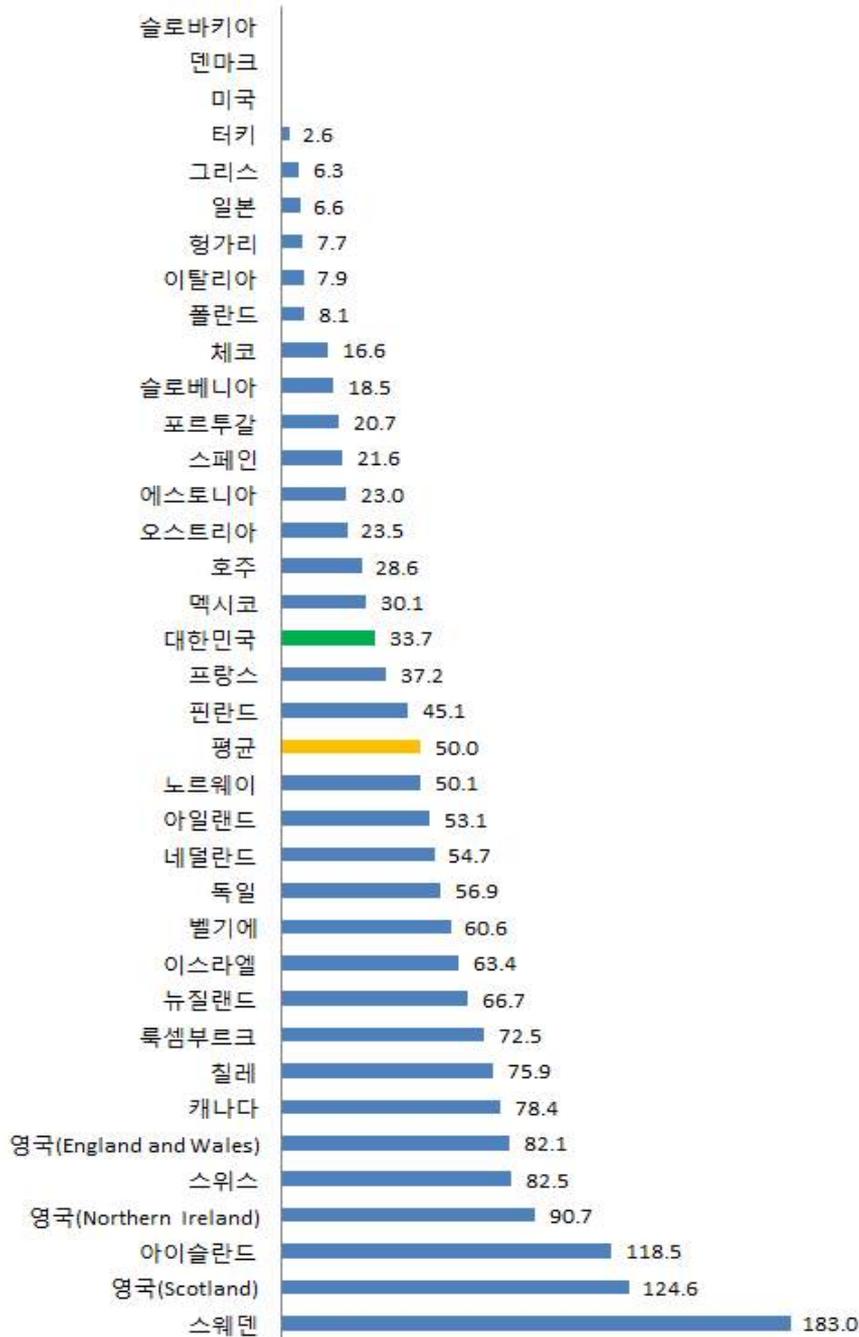
-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에서 집계 및 발표되고 있는 성폭력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성폭력 발생건수는 인구 10만명 당 33.7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성폭력은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포함한 강간과 성폭행을 의미함.
- 국가 간 성폭력에 대한 법적 정의 및 집계방식, 기록방법의 차이로 국가간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대체로 스웨덴, 영국(Scotland) 순으로 발생건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스웨덴의 높은 성폭력 발생건수와 강간건수는 성폭력에 대한 광의의 해석, 동일인에게 벌어진 다수의 범죄를 모두 각각의 범죄로 기록하는 등의 차이에 기인함¹⁾²⁾.

1) The Swedish National Council for Crime Prevention., "How common is rape in Sweden compared to other European countries?", 2011-01-18.

2) Elman, R Amy(1996). *Sexual subordination and state intervention: comparing Sweden and the United States*. Berghahn Books.

여성정책 3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품다

단위 : 인구 10만명 당 건수



[그림 9] OECD 국가별 성폭력(Sexual Violence) 발생건수,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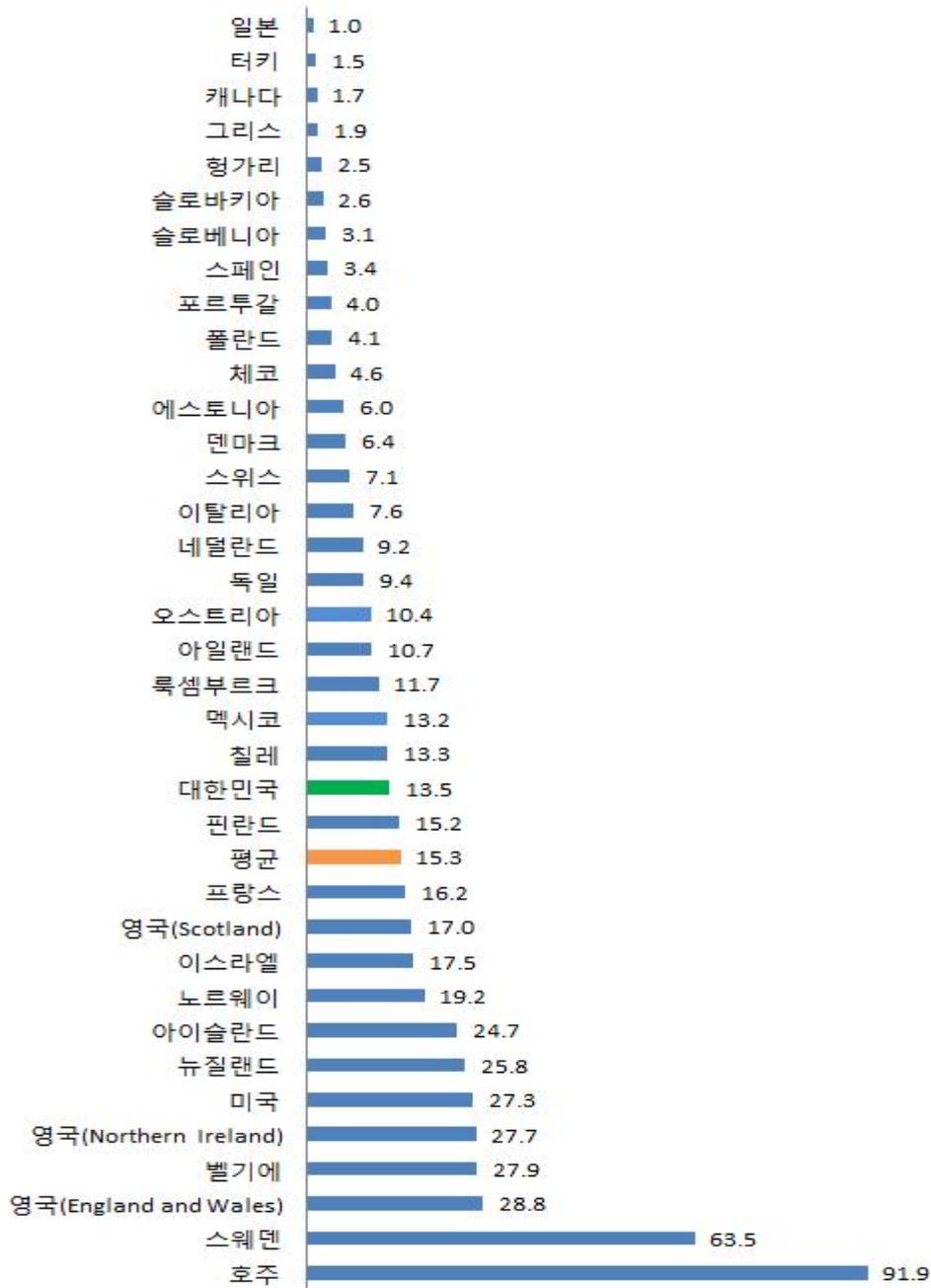
자료 : UNODC, Statistics on Crime

- * 2008년 데이터 사용한 국가 : 이스라엘, 터키,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칠레
- * 2009년 데이터 사용한 국가 : 한국, 그리스, 체코, 에스토니아, 프랑스
- * 평균값은 슬로바키아, 덴마크, 미국을 제외하고 구한 평균값에 해당하며, 상기 국가의 경우 2008년, 2009년 데이터로 2010년 데이터를 대체하여 사용함.

- UNODC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강간 발생건수는 2004년 현재 인구 10만명 당 13.5건으로 이후 통계는 제시하지 않고 있음.
- 강간은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관계를 의미함.
- 2010년 현재 OECD국가들의 평균 강간 발생건수는 15.3건으로 파악되며, 국가간 강간에 대한 법적 정의 및 집계방식, 기록 방법의 차이들을 내포하는 수치이므로 국가간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호주, 스웨덴, 영국(England and Wales) 순으로 발생건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여성정책 3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품다

단위 : 인구 10만명 당 건수



[그림 10] OECD 국가별 강간(Rape) 발생건수, 2010

자료 : UNODC, Statistics on Crime

* 데이터 년도 : 호주(2003년), 한국(2004년), 이탈리아(2006년), 이스라엘(2008년), 터키(2008년), 룩셈부르크(2008년), 칠레(2008년), 슬로바키아(2009년), 체코(2009년), 덴마크(2009년), 아이슬란드(2009년), 영국(Scotland)(2009년), 프랑스(2009년)

* 상기 국가의 경우 각 국가별 최근 데이터로 2010년 데이터를 대체하여 평균값 계산에 사용함.

2) 아동 성폭력 발생건수

□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성폭력 발생건수 통계는 제시하지 않고 있음.

○ 단, 법무부의 「법무부여성통계」에 의하면 2010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특별법위반 범죄발생건수는 880명으로 인구 10만명당 13.2명으로 나타남.

※ 2011년 10만명 당 12.6명

□ 2010년 현재 OECD국가들의 평균 아동성폭력 발생건수는 20.1건으로 파악되며, 국가간 강간에 대한 법적 정의 및 집계 방식, 기록방법의 차이들을 내포하는 수치이므로 국가간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스웨덴, 영국(Northern Ireland), 칠레 순으로 발생건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여성정책 3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품다

단위 : 인구 10만명 당 건수



[그림 11] OECD 국가별 아동 성폭력 발생건수, 2010

자료 : UNODC, Statistics on Crime

- * 2008년 데이터 사용한 국가 :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 * 2009년 데이터 사용한 국가 : 그리스, 체코, 영국(England and Wales), 프랑스
- * 평균값은 터키, 슬로바키아, 덴마크, 아일랜드, 대한민국, 영구(Scotland), 미국, 호주를 제외하고 구한 평균값에 해당하며, 상기 국가의 경우 2008년, 2009년 데이터로 2010년 데이터를 대체하여 사용함.

부표

□ OECD 회원국의 연도별 성폭력 발생건수

단위 : 인구 10만명 당 건수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대한민국	14.0	14.8	15.6	18.5	18.4	20.7	33.7	
일본	9.9	9.0	8.6	8.1	7.5	6.9	6.4	6.6
이스라엘		75.5	69.6	16.4	66.9	63.4		
터키	4.3	4.3	4.4	4.8	2.9	2.6		
그리스	8.1	5.6	5.7	5.7	5.2	6.1	6.3	
스페인					23.2	25.6	23.4	21.6
슬로베니아	7.3	18.5	15.5	14.3	18.0	13.7	17.0	18.5
이탈리아			6.9	7.6	8.2	8.2	8.2	7.9
포르투갈	18.8	16.2	15.4	16.3	17.1	21.2	24.0	20.7
슬로바키아								
체코	54.0	18.7	18.1	15.7	16.4	16.2	16.6	
폴란드					9.7	8.6	8.3	8.1
헝가리	5.5	7.6	8.5	6.5	6.4	6.8	7.3	7.7
노르웨이	43.8	42.6	42.4	46.6	47.3	48.0	49.9	50.1
덴마크								
스웨덴	113.5	116.1	129.7	133.6	137.1	155.3	168.5	183.0
아이슬란드			97.1	93.4	114.2	118.5		
아일랜드		42.9	43.3	33.5	31.8	32.3	33.6	53.1
에스토니아	15.9	39.0	29.9	26.3	18.2	27.4	23.0	
영국 (EnglandandWales)	92.3	89.6	88.3	81.4	76.8	74.8	79.3	82.1
영국 (NorthernIreland)	85.8	73.8	81.8	85.9	82.3	89.0	83.9	90.7
영국 (Scotland)		144.2	128.7	131.4	127.4	122.5	124.3	124.6
핀란드	30.3	33.8	36.6	51.8	44.0	54.7	41.3	45.1
네덜란드			77.9	76.7	68.8	63.3	60.8	54.7
독일	66.2	69.4	66.9	63.3	68.2	68.8	59.6	56.9
룩셈부르크				44.0	124.4	72.5		
벨기에	54.0		58.1	61.6	61.3	60.2	60.4	60.6
오스트리아		24.5	20.3	21.0	21.6	20.1	20.1	23.5
스위스							87.2	82.5
프랑스	42.9	43.3	39.1	37.3	37.7	38.7	37.2	
칠레	38.3	42.9	48.0	47.2	63.0	75.9		
미국								
멕시코		27.4	26.9	28.7	30.3	29.7	30.2	30.1
캐나다	82.7	80.4	81.6	77.4	74.3	75.1	73.7	78.4
뉴질랜드			59.6	67.5	65.9	63.9	65.4	66.7
호주						29.7	29.0	28.6

□ OECD 회원국의 연도별 강간 발생건수

단위 : 인구 10만명 당 건수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대한민국	12.7	13.5						
일본	2.0	1.7	1.6	1.5	1.4	1.3	1.1	1.0
이스라엘		20.4	18.5	19.1	18.4	17.5		
터키	2.4	2.4	2.5	2.6	1.6	1.5		
그리스	2.1	2.2	1.6	1.6	1.6	2.1	1.9	1.9
스페인			4.9	4.8	5.7	5.4	4.5	3.4
슬로베니아	3.5	4.4	2.9	2.7	4.8	2.8	3.9	3.1
이탈리아	4.7	6.4	6.9	7.6				
포르투갈	3.7	3.2	3.5	3.2	2.9	3.0	3.5	4.0
슬로바키아	4.3	4.1	3.7	3.2	3.4	2.8	2.6	
체코	6.3	6.7	5.8	5.2	6.2	5.1	4.6	
폴란드	6.1	5.7	5.2	5.2	4.8	4.2	4.0	4.1
헝가리	5.3	2.6	2.6	2.0	2.1	2.1	2.3	2.5
노르웨이	15.5	16.1	17.3	18.0	20.0	19.8	20.6	19.2
덴마크	8.8	10.4	8.8	9.7	9.0	7.2	6.4	
스웨덴	25.0	25.2	41.9	46.3	51.8	59.0	63.8	63.5
아이슬란드	23.8	17.4	25.3	23.9	28.5	21.9	24.7	
아일랜드	9.2	10.0	10.8	8.8	8.3	8.0	8.5	10.7
에스토니아	7.9	9.0	13.3	11.4	9.1	11.9	9.2	6.0
영국 (EnglandandWales)	25.1	26.4	27.0	25.6	23.4	24.0	27.5	28.8
영국 (NorthernIreland)	21.4	21.0	20.0	25.7	22.1	20.7	23.6	27.7
영국 (Scotland)	15.7	17.7	19.1	18.0	17.7	15.9	17.0	
핀란드	11.0	11.4	11.3	11.6	14.0	17.2	12.4	15.2
네덜란드	10.5	11.1	15.2	14.6	12.7	11.6	11.2	9.2
독일	10.6	10.7	9.9	9.8	9.1	8.8	8.9	9.4
룩셈부르크				8.6	9.2	11.7		
벨기에	27.7	28.4	29.1	30.5	30.7	29.5	27.7	27.9
오스트리아		8.4	8.2	8.5	8.5	8.3	9.3	10.4
스위스	7.5	7.8	8.7	8.6	8.6	8.1	8.7	7.1
프랑스	17.3	17.3	16.4	15.9	16.4	16.5	16.2	
칠레	10.4	11.4	12.1	12.4	11.9	13.3		
미국	32.2	32.3	31.8	31.5	30.6	29.8	29.0	27.3
멕시코		13.0	12.7	12.9	13.0	12.7	13.3	13.2
캐나다	1.7	1.8	1.8	1.7	1.6	1.5	1.4	1.7
뉴질랜드			24.0	28.3	27.0	26.4	26.1	25.8
호주	91.9							

□ OECD 회원국의 연도별 아동성폭력 발생건수

단위 : 인구 10만명 당 건수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일본	5.8	5.1	4.6	4.2	3.8	3.5	3.2	3.4
이스라엘		45.6	43.8	42.7	41.1	40.1		
그리스		0.3	0.5	0.5	0.6	0.6	0.4	
스페인					3.4	4.9	3.5	2.8
슬로베니아	9.8	10.9	9.4	8.6	10.1	7.9	9.8	12.0
이탈리아			2.0	2.2	2.3	2.2	2.0	1.9
포르투갈	6.8	6.2	5.0	5.8	6.1	5.6	6.3	7.3
체코	10.5	8.0	8.6	7.2	7.4	7.7	7.9	
폴란드					4.9	4.4	4.3	4.0
헝가리	5.9	3.6	4.3	3.1	2.9	3.6	4.5	4.6
노르웨이	24.0	22.1	20.5	23.7	23.0	24.1	24.6	26.1
스웨덴	5.2		37.1	40.4	41.2	63.5	70.6	73.6
아이슬란드	23.8	7.2	19.2	18.3	25.8	32.8		
에스토니아				18.2	11.0	19.4		
영국 (EnglandandWales)	7.8	30.3	32.9	31.0	28.6	28.0	31.8	
영국 (NorthernIreland)	58.0	56.8	50.4	50.7	50.2	59.0	55.2	58.0
핀란드	14.3	16.2	18.0	19.8	19.4	24.8	20.0	20.5
네덜란드			8.8	9.2	8.6	7.5	7.2	5.7
독일	19.8	19.7	16.9	15.5	15.5	14.6	13.7	14.4
룩셈부르크				13.1	16.8	18.7		
벨기에	32.6	60.5	35.0	37.5	37.2	35.7	34.2	34.0
오스트리아		8.9	7.1	6.7	7.3	6.7	6.1	7.8
스위스							20.0	14.8
프랑스	27.3	24.3	22.3	22.2	23.1	21.8	21.6	
칠레	5.3	20.7	10.2	32.3	36.7	47.1	51.9	50.9
미국								
멕시코		2.6	2.4	2.6	2.5	2.3	2.3	2.1
캐나다	0.2	0.2	0.2	0.6	1.6	4.3	8.0	10.7
뉴질랜드			29.5	36.0	35.8	33.3	33.3	34.6

붙임 1 OECD 회원국의 연도별 성폭력 추이

그리스



노르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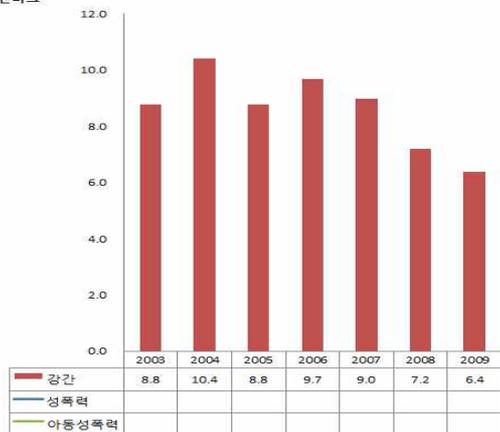
네덜란드



뉴질랜드



덴마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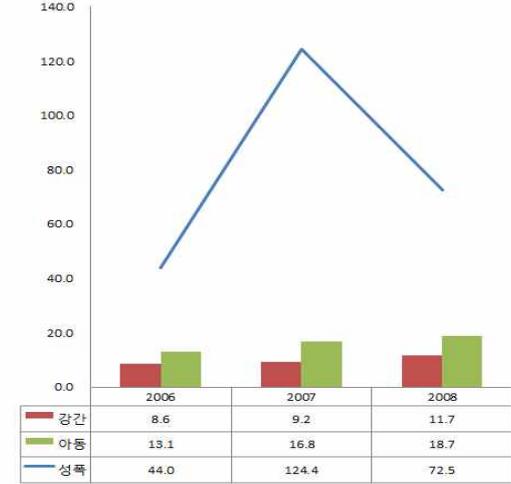


독일



여성정책 3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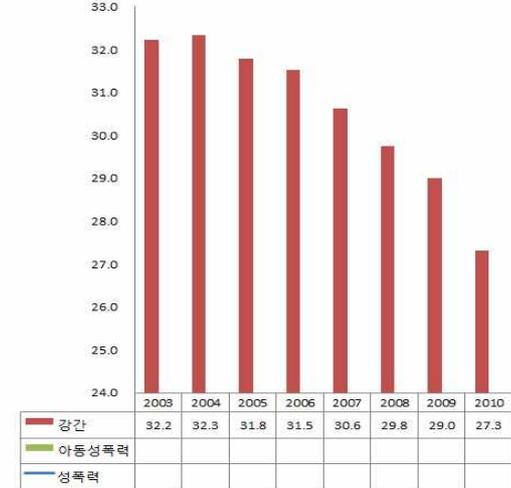
룩셈부르크



멕시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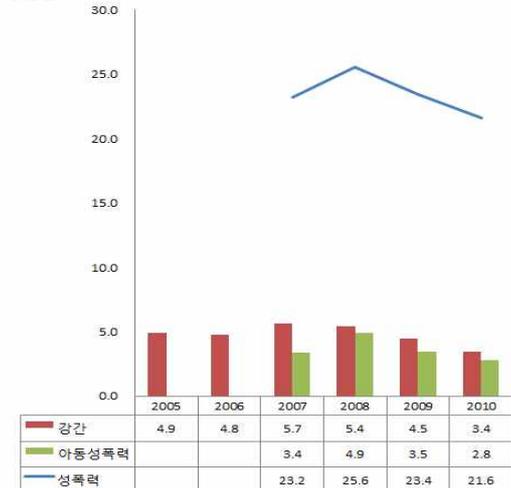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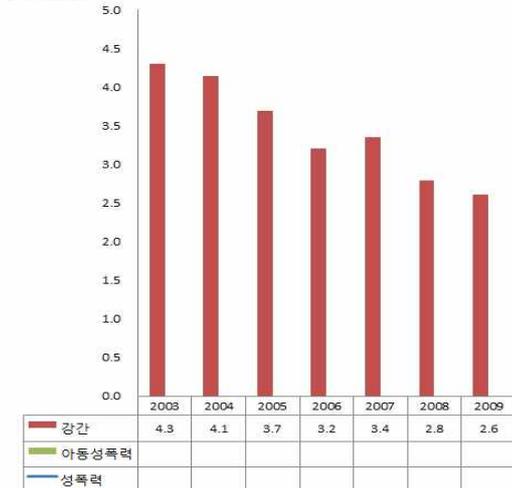
벨기에



스페인



슬로바키아



여성정책 3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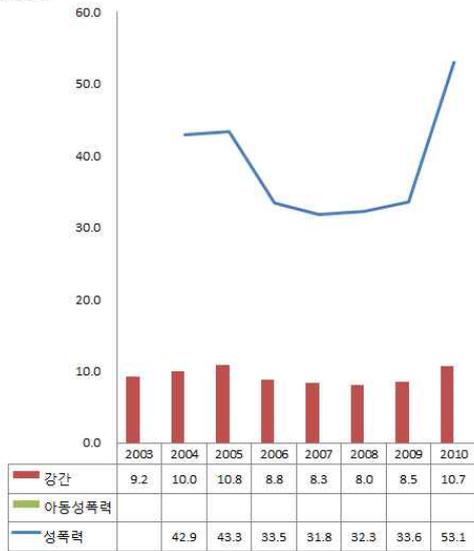
슬로베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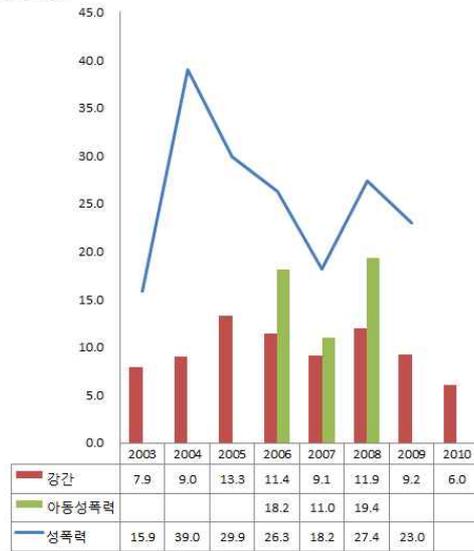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England and Wa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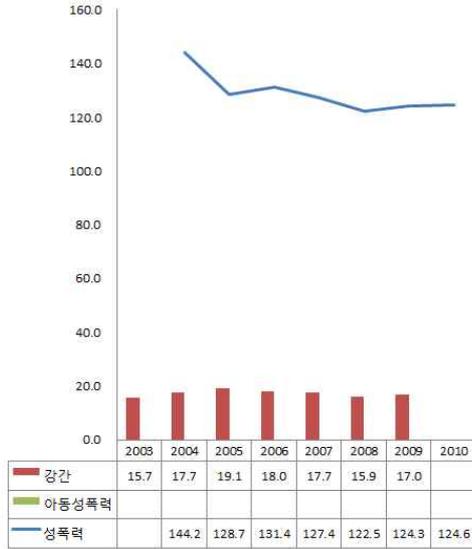


영국(Northern Ireland)



여성정책 3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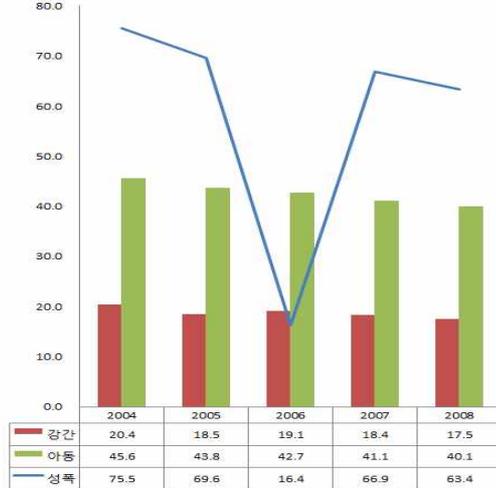
영국(Scotland)



오스트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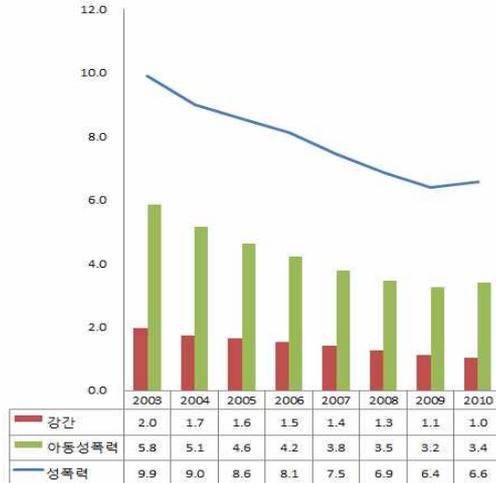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여성정책 3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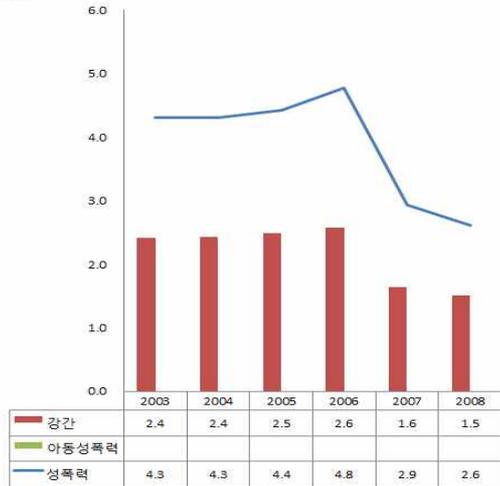
칠레



캐나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여성정책 3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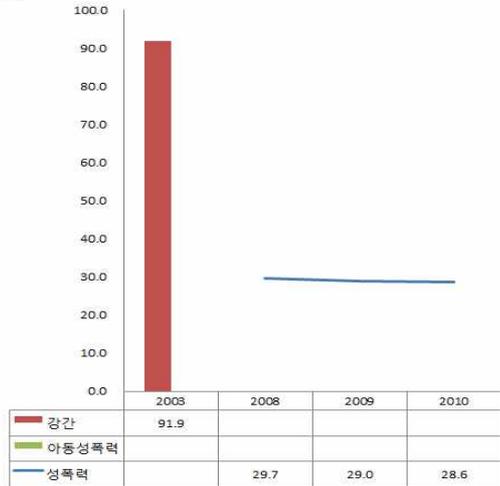
핀란드



헝가리



호주



붙임 2 UNODC의 CTS

가. 개관

- 구축기관 :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 데이터명 : 범죄동향 및 형사사법체계운영실태조사(Crime Trends and the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 CTS)
- 인터넷주소 : www.unodc.org

나. UN CTS 통계에 대한 배경 및 목적

- 1984년 UN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통과에 따라 유엔 범죄동향 및 형사사법체계운영실태 조사(UN survey on Crime Trends and the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 CTS)를 실시.
- CTS의 목적은 각국에 보고된 범죄통계와 형사사법제도의 운용 실태에 관한 국제사회차원에서의 데이터 수집 및 정보교류에 있음.
- 각국의 범죄 및 형사사법제도 관련 통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각국 정부의 범죄관련 정책 및 예산 투입, 의사결정 등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
- 형사사법통계는 행정, 계획, 정책조사와 분석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뉨.

다. 통계 수집

- UN-CTS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주요구성요소인 경찰, 기소, 법원, 교도소에 대한 통계수치를 다루고 있음.
- 그리고 매년 회원국들로부터 회수된 설문 응답지 형식의 자료를 표준화하여 통계 제시.
- 통계분야 : 범죄, 형사사법, 마약밀매 및 제조, 약물사용

라. 통계 현황

□ 11개의 CTS가 UNDOC를 통해 배포됨

- Eleventh CTS (2007-2008)
- Tenth CTS (2005-2006)
- Ninth CTS (2003-2004)
- Eight CTS (2001-2002)
- Sixth CTS (1995-1997)
- Seventh CTS(1998-2000)
- Sixth CTS(1995-1997)
- Fifth CTS(1990-1994)
- Fourth CTS(1986-1990)
- Second and Third CTS(1975-1986)
- First and Second CTS(1970-198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령, 정부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원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